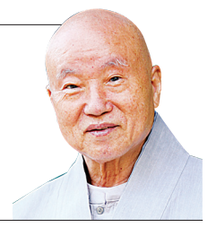
| 현불논단 |

늘 푸른 마음으로



법산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장

인류 스승 부처님이 오신 축제의 달
중생 찌든 마음 아름답게 밝히는 날
푸른 하늘 보며 허공에 날려 버리고
아픔 없는 오월 아름다움으로 회귀를

자연 섭리 등지는 이유는 탐착의 소치
유혹 이끌려 시기 질투로 싸우고 있다
탐착 버리면 지혜가 푸르게 피어난다

내 마음!
바탕은 어떤 색일까?
형상은 어떤 모양일까?
하나일까?
여럿일까?

하늘은 색상이 없어 걸림이 없고
마음도 하늘과 같아서 걸릴 것이 없다
하늘을 헤아릴 수 없듯이
마음도 또한 그러하거늘
어디에 걸릴 것이 있으랴.

하늘은 텅~ 비어 푸르고
바다는 맑은 하늘을 마주하여 푸르고
청산은 모든 생명의 자성을 나투어 푸르도다.

한마음 알고 싶거든 하늘을 보고 비우고
한 생각 괴로우면 푸른 바다에 씻어버리고
성질이 나거들랑 청산을 지나는 흰 구름에 실어 보내게나.

늘 푸른 마음으로 살자. 오월의 신록처럼 싱거롭게 살자.

하늘은 텅 비어 시비가 본래 없고, 바다는 넉넉하여 어떤 사물이 들어와도 한 맛으로 동화하고, 청산은 풍요로워 모든 생명을 아름답게 길러주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월은 생명력이 신성하게 피어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다.

시인들은 오월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 독립운동가 김영랑(1903~1950)의 오월의 시에 ' 삶의 숨결도 생명의 용기 더하는 오월/ 이기와 욕심으로 감겨진 눈을 뜨게 하십시오/ 눈떠서 햇살 보게 하십시오/ 구석구석 어둡을 털어내는/ 빛의 자녀답게 하십시오' 라고 했다.

김옥준은 오월의 시에 '출렁이는 오월의 평화 속에/ 하늘 빛 들판 빛 산의 빛이/ 오월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프르름과 감흥으로 / 수 놓으며 꽃도 하늘도/ 지원을 보내고/ 새소리 하늘 소리 나직이 좋은 날/ 물빛 반짝반짝/ 오월이 가는구나' 라고 했다.

특히 인류의 멋진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신 축제의 달 오늘은 중생의 찌든 마음을 아름답게 밝혀주는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달이다.

설사 마음을 찌르는 아픔도 있는 괴롭고 슬픈 사연도 있었지만 오월의 푸른 하늘을 보며 허공 속에 날려버리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오월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자.

모든 생명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의 섭리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거역해봐야 괴로움만 더할 뿐이다.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등지는 이유는 오직 탐착의 소치이다. 욕심내고 집착하면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반드시 타서 죽을 것이 분명한데 어리석은 인간은 우선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탐착의 노예가 되어 시기와 질투로 비방하고 싸우며 죽어가고 있다.

탐착심을 버리면 싸울 일이 없고 싸울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의 밝은 지혜가 늘 푸르게 피어나며 늘 푸른 오월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합께하는 정토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가자! 내 마음 오월의 하늘이 되고
라이락 이팝나무의 향기가 되어
오월의 시를 노래하며
아름답게 살자.

社 說

청년불자 양성 마중물 기대한다

지난 1월 17일 신년기자회견서 '순례 대중화' 와 '청년 포교' 라는 두 축으로 한 해 포교 활성화에 진력하겠다고 밝힌 조계종 제8대 포교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전국 각지의 순례길을 개발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전법 간담회, 장학금 지원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런 의지는 지난 6일 포교원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전법 ON 포교 원력 선포식' 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포교원은 올해를 '포교 역량 전문화 원년의 해' 로 천명하며 "청년세대와 눈높이를 맞추는 포교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지난 2월 사단법인이 된 상월결사와의 업무협약이 밑바탕이 됐다. 포교원과 상월결사는 당시 "1~2년에 그치는 사업이 아닌 1차 10년 계획을 세워 포교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는데, 1사찰 1학교 결연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학생청년전법단을 축으로 위원회를 꾸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2019년 청년대학생전법단과 대불련이 발표한 '청년불자 종교의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44%가 무교거나 이웃종교인이었다. 불자가 아니지만 불교동아리에 가입한 배경으로는 '불교문화에 대한 호기심' 이 꼽힌다. 종교적 신심보다 템플스테이, 연등회, 사찰음식과 같은 하나의 문화가 청년들의 마음을 자극한 셈이다.

이에 따라 불교동아리에선 학생들에게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학생의 상황에 공감하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거나 학업을 돕는 장학금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포교원과 전국 사찰, 포교 · 신도단체들이 불교가 궁금해서 찾아온 청년에게 흥미를 돋워 '노인의 종교' 라는 오명을 벗어나길 기대한다.

국회 정각회 창립 40주년에 부쳐

국회 정각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1978년 불자 국회의원들의 소모임이 전신인 국회 정각회는 1983년 4월 27일에 정식으로 창립됐다.

창립 이래 국회 정각회는 불교를 외호하는 호법신장으로서, 불교계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역할을 했다. 특히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 법안 제 · 개정과 불교방송 개국, 군종장교 비율조정, 경승제도 신설 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제14대 국회였던 1995년 4월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관에 불교법당인 '정각선원' 이 개설됐다. 2009년부터 매월 첫째 수요일 정기법회를 시작했으며, 코로나19 당시에는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법회를 봉행했다. 제11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국회 정각회는 현재 국회의원 47명, 국회 직원 72명 총 119명이 활동 중이다.

5월 10일 열린 창립 40주년 기념법회는 여야를 뛰어 넘어 화합의 정치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도 법어를 통해 "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 는 보살의 원력으로 세상의 고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세계의 정세는 혼탁하고 한국사회 내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치인이다. 부처님이 서원한 '중생 구제' 원력과 정치인들의 '국태민안' 목표는 결국 '이타행' 으로 맞닿는다.

국회 정각회는 이제 '불혹' 의 나이가 됐다. 중년이 됐다는 것은 완숙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회 정각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완숙한 화쟁의 정치를 펼치길 기대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야구 경기

온갖 꽃과 나무들이 함성을 터뜨리는 5월이다. 야구장 담장 너머로도 환호 소리가 터져 나온다. 누구나 아름다운 계절에는 집 밖으로 나와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을 펴고 기지개를 활짝 켜는 것인지. 야구장 스탠드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탄성과 환성이 천지를 진동하고 있다.

야구는 10명으로 이뤄진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며 승패를 겨루는 구기 경기이다. 공격하는 쪽은 상대편 투수가 던진 공을 방망이로 치고 경기장 내의 특정 지점을 돌아 홈으로 돌아오면 점수를 얻는다. 투수가 시속 140km에 달하는 속도로 던지는 공은 공포를 야기하지만 타자는 본능적으로 그 공을 배트로 받아쳐야 한다. 타자가 총알처럼 날아오는 공을 쳐서 출루하지 못하면 그만 아웃당하기 때문이다. 수비하는 팀의 선수들은 타자가 친 공을 온몸으로 받아내 상대팀이 다음 루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야구는 다른 구기 종목과는 달리 세 사람의 죽음이 게임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 루를 밟느냐, 밟지 못하게 하느냐는 삶과 죽음의 치열한 공방전 같다.



그림 · 최주현

이처럼 죽음을 흥미진진하게 여기는 게임이 어디 있을까. 이런 까닭에 김홍중 문화사회학 교수는 "야구에는 죽음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했는지 모른다.

공격하고 방어하는 두 팀은 공평하게 9회씩 경기를 치른다. 삶과 죽음이 차별 없이 교차하고 있다. 관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팀이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응원한다. 죽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야구 경기장 안에서는 죽음에도 환호를 보낸다.

야구는 집(홈 플레이트)에서 시작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게임이다. 타자는 집을 떠나 1루, 2루, 3루를 거쳐 집으로 귀환한다. 집이라 해도 같은 팀의 동료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불쑥 등장한 타자가 공을 치고 집을 떠나도 공간을 얻지 못하고 다이아몬드의 선분을 전력 질주하여 집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그 집을 0으로 비유해도 무방하리라.

집은 무(無)로서 만물의 근원(根源)인 셈이다. 노자는 천하 만물은 유(有)에서 생기고, 유는 무에서 생긴다고 했다. 만물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영원한 반복을 한다. 인간도 태어나서 죽으면 무로 돌아가지만, 다시 조건 따라 태어나기 마련이다. 야구는 옛날 봄의 도래를 찬미하는 어느 종족의 집합 의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바로 영원회귀(永遠回歸)에 기초한다 하겠다.

중국 당나라 때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萬法歸一 一歸何處)"라고 물었다. 만법의 만법은 공(空)일 터. 야구 타자는 그 공마저도 방망이로 치고 공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닐까?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전통불복장 전수 교육 안내말씀

불교문화는 부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이래로 한국불교 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와 아울러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적으로 불교역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특히 모든 불교 의례중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은 불교문화의례에 가장 핵심이며 등상불이 불복장을 통해서 완전한 부처님으로 화현했을 때 불공의식 예수재 수륙재 시식 제불공 및 범패 태징 바라 나비춤 법고춤 살풀이 화관무 진도 씻김굿등 민속문화까지 모든 의례 의식이 구현되었다.

특히 불복장은 무형에서 유형을 만드러내는 과정을 조상경에서 밝혔는데 용허스님이 자료를 수집하시고 화악스님이 경전과 제방 선지식을 통하여 고증해서 완성한것이 강원도 금강산 유점사본이다 화악스님의 교판에 의하면 조상경은 신해행증(信解行證) 사문(四門)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첫째 신(信): 등상불을 살아 계시는 부처님으로 철저히 믿을 것
둘째 해(解): 복장에 들어갈 250여 가지의 물품을 왜 넣어야 하는지 각각의 뜻을 잘 알아야 하고 의식할때의 마음가짐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셋째 행(行): 삽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각종 진언을 지송할 때 사부대중이 동심 일체가 되어 모두 금강신으로 들어가 작법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수행 정진이며
넷째 증(證): 조성불을 화현불로 탄생시키는 의식 즉 점안작법 점필법이 있다.

이상의 개괄적 설명과 같이 근본 부처님을 완성하는 의식 작법이야 말로 모든 의례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의식 작법은 불교 전체 불교인의 불교문화 의식이기에 모든 종파를 초월하여 완전개방해서 누구나 공유하고 자타일시 성불을 기원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증명: 활안정섭(서울 금강선원 총재)
범청상명(선안사 전 주지 및 현 선원장)
의식 법주 겸 강주 : 담양 용화사 주지 도월수진 (전 무형문화재 제 139호)

- 아 래 -

지원자격: 불교계 비구 비구니 교법사 교임(AI인공지능 조예가 있는분 대 환영)
개강일시: 2023년 양 5월 31일(음 4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교육기간: 1년과정 1학기 2개월 2학기 9월부터 3개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모집인원: ○○명
수 강 료: 매월 20만원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다운로드 **홈페이지:** (www.dyhs.kr(담양용화사))
2. 각 종단 승적증명서(1부) 또는 승려증 사본 교임확인서
3. 반명함판 사진 3매
교육장소: 담양 용화사 대웅보전
접 수: 수시모집
교 과 서: 별도 (개강일 분배)

교육원은 전통의식을 여법히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하며 출재가자도 환영 전과정을 통하여 수료 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 자격증을 부여함 (수료증 포함)

한 국 불 교 전 통 불복장 교육원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촌길 77 용화사
담양 용화사 전화: 061-381-2683 팩스: 381-2749
e-mail: hb480806@hanmail.net
사무국장 : 국 진 (010-5048-7782)